



# 商標와 特許에 새로운 認識을

南 啓 榮

大韓辯理士會 副會長  
特許法律事務所 所長

□ 남의 商標나 特許權을 侵犯하여 紛争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外國의 特許權 때문에 손발이 묶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企業活動을 못하고 애를 태웠던 경험은 모두가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 電子業界에서도 TV와 錄音機 등 중요한 분야에서 外國의 特許를 侵害했다 하여 抗議를 받고 特許料도 아니고 罰金도 아닌 엉거주춤한 돈을 물고 넘어간 일도 있었으며, 남의 商標와 類似하다 하여 製品을 市場에 풀지 못하고 애를 먹은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事例은 商標와 特許 분야에 대한 극히 초보적인 관심과 常識만 있었어도 專問家에게 議論해야겠다는 생각이 났을 것이고, 專問家의 指導를 받았더라면 그와 같은 어려움을 미리 豫防하거나 모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는 無關心 때문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것입니다.

□ 내 商標(Trade mark)와 意匠(Design)은 속히 輸出對象國에도 登錄을 해야 합니다. 貴社도 이미 數百萬弗을 輸出하는 나라가 있을 것이며 그 나라 數도 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海外市場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貴社 製品을 만지게 되고 보게 되어 그 聲價와 信

世界的인 不況 속에서 오래도록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生産과 輸出을 계속하고 있는 電子業界의 底力과 끈기에 尊敬과 激勵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電子工業 關係의 일을 맡고 있을 때에 業界의 事情을 많이 알게 되었지만, 예를 들면 일반 家庭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이름을 지어 戶籍에 올리면서도, 社會에서는 製品을 生産하여 어려운 輸出을 하면서도 会社와 製品의 看板格인 商標(Trade mark)와 意匠(Design)의 登錄을 소홀히하는 예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름도 없는 아이를 市場바닥이나 海外에 내보내는 격이며 來日의 商權을 흘려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外國人의 特許權이나 商標權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때만 지나면 아무 對應策 없이 호지부지 넘겨버리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에 이제는 이 분야에 적극적인 關心을 가져야 한다는 呼訴에 가까운 案內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頼도가 쌓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貴社の 큰 밑천이며 無形의 財産인 것입니다. 全世界의으로 널리 알려진 著名한 会社, 有名한 商標의 威力과 利點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아직도 놀려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低價販賣, OEM 등등.

이제는 우리 製品에도 이름(商標)을 지어 登錄하고 사용하며 宣傳하여 商標權을 굳혀 가야 합니다. 商標뿐만 아니라 製品의 얼굴격인 意匠(Design)도 商標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입니다.

貴社の 歴史가 쌓일수록 製品을 代辯하는 商標와 意匠은 유명해질 것이며 이에 대한 侵害(模倣, 類似品, 不正競争)의 우려와 保護의 必要性은 國內外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常識化된 일이지만 製品이 나오기 전에 商標를 登錄하고 製品이 輸出되기 전에 그 輸出對象國에 商標가 먼저 出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製品을 만들기 위한 金形을 뜨기 전에 그 Design을 意匠權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 新製品 開發에는 特許를. 高級人力과 開發資金을 투입하여 모처럼 性能 좋은 新製品을 개발하고 構造와 Design을 개량하여 새로운 製品을 만들어 내면 市場에 출하하기가 무섭게 模倣品과 類似品이 판을 치기 일쑤입니다.

이런 弊端을 방지하고 開發의 功을 業權으로 보호받는 길은 特許를 받는 것입니다.

先進國에서는 不況을 이기는 길, 競争에서 이기는 방법으로써 技術과 新製品을 개발하기 때문에 不況일수록 研究開發費의 投資가 늘고 特許出願이 늘어가는데, 우리는 이와는 반대로 利益이 적게 나면 第1次로 삭감하는 것이 研究費, 特許出願費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傾向에서도 벗어나야 할 時占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려 애쓰는 權利만이 모든 法과 사람들로부터도 正當한 保護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案 內 文

現代의 企業이 알차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技術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 아이디어와 技術은 다듬어져서 特許權이나 商標權 등으로 法의 保障을 받아야 獨占的인 權益을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科學技術의 꽃이라 할 수 있는 電子産業에서는 그 보장된 權益이 企業의 盛衰를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本會의 前副會長이던 南啓榮씨가 特許와 商標에 관한 法律事務所를 開設하였는데, 특히 우리 會員業體를 위하여 商標와 特許에 관련된 相談과 便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利用과 活用있으시기 바랍니다.

(南啓榮씨 略歷)

○69. 3 : 特許廳 抗告審判所長

○73. 3 : 特許廳 第1 審査局長

○76. 4 : 韓國電子工業振興會 副會長

○現 在 : 特許法律事務所 所長

大韓辦理士會 副會長

○制 定 : 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草案, 特許局設置法, 辦理士法, 發明保護法 施行令 等 草案 外.

## 南啓榮特許法律事務所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7 우남빌딩 306호(南大門 앞)

電話 : 752-5236, 5228(夜間 : 568-0929)